#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여기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리기 전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은1년 전인 9월 8일 즈음이었다. 복기하면서 조직위 단톡방을 둘러보니 처음 계획이 오갈 때는 대주제, 소주제, 규모, 일정, 예산, 기조발제자, 자문단, 참여 단체 결정 등 막막한 느낌도 들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대체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판단해 본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니 주도하는 분들이 2016년 한국에서 개최 경험이 있어서인지 안정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네트워크에 시민운동가, 정당, 시민단체, 청년 그룹, 연구자와 학자 그룹의 열정과 의욕들도 결합한 것일 것이다. 대회 장소는 초기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정해졌으나 그곳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화여대 ECC관으로 변경된 사연도 있었다. 변경 장소가 처음에는 생경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친근하게 와 닿았다. 시설면에서 위치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다고 평가해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주희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1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에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결속이 잘 되어 있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소득의 실현에 대한 의식적 참여자들의 지구적 운동 역사가 축적된 것일 것이다. 하이브리드 개최를 통해 멀리 외국에서 줌ZOOM 참여가 가능한 점도 신선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준비 과정에서 걱정도 있었지만 한번 실행해 보고 나니 지구 어느 곳에서도 연결하여 함께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인 것이다. 마지막 날 폐회식 직전 섹션에서 일본의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의

온라인 접속 토론도 기억나고, 시간에 쫓겨 충분한 답변도 없이 끝낸 장면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언제 다시 이런 의미 있는 대회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어 예산과 거리에 지장을 덜 받으며 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대회 참여단체와 기관, 예산 확보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역시 한국적 역동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대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이 과정에서 조직위 분들의 고생이 많았던 점은 꼭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전남대회가 무산되고 그쪽 지역단체가 사전 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시간, 예산, 공간, 참여 인원 등 전체 진행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이었다.

첫째 날 애니 밀러 선생님의 기조 발제에서 기본소득이 정책목표가 아니며 수단이라는 것, 그리하여 공공서비스, 적극적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기금 형성에 의한 공유부(필자가 첨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멘트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파일럿 실험보다 마이크로 데이터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수긍되는 지적이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실질적 자유로써 기본소득의 실현이나 강남훈 조직위원장님의 탄소세 부과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가격의 간격을 균등화하자는 주장도 기억에 남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와 현실적 전개(부분기본소득)도 외국 참여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된 듯 많은 질문이 있었다. 서정희 선생님의 '현실에서의 기본소득의 굴절과 위계'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완전 기본, 부분 기본, 범주형, 참여 소득, 부의 소득세를 두고 기본소득 5개 원칙에 따른 구분 등이 외국 학자에게는 상당한 논쟁거리를 던져준 느낌이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성과와 현실 전개의 결과물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익숙한 것

이었지만 외국 학자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발견이었다.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그만큼 활성화된 결과일 것이다.

둘째, 셋째 날 코로나19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도 커졌고, 기후재난위기에 기본소득의 도입 및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듯하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 공유부, 기본소득과의 관계 맺기가 논의의 장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특히 논의가 왕성한 공유부 배당론도 커먼스, 커머닝, 커먼웰스와 기본소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심화한 연구가 아직 남아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와 논의,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도 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빈곤, 불평등, 젠더, 건강 등과 기본소득 관련 주제들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문학과 기본소득 섹션에서 김혜자 시인의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라는 주제 발제에서 밭에서 고추를 따느라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줌을 통해 웅변가적 톤으로 열변을 토하는 시의 마지막 시구 "만국의 백수여 단결하라."가 가슴을 울린다. 노동권, 사회권을 뛰어넘어 생명권으로써 기본소득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선한 마음의 인문적 지평으로 기본소득도 우리 사유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휴머니스트들일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자본주의 맹아기의 격어가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먹어도 좋다."는 구직활동이나 직업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생계보장하여야 하는 복지국가의 사회권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 국가론을 제창해 보고 싶다.

대회장의 분위기는 기본소득당원, 자원봉사자, 기본사회 단체 분들의 도우미 역할이 인상 깊었고 젊은 멤버들의 혈기가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4일 차는 하계 졸업식이라 이화여대 교정에 사각모를 쓴 졸업생들의 사진 찍는 모습이 환한 인상으로 와 닿기도 하였다. 나도 소싯적 저런 젊은 날이 있었노라 위안 삼으면서. 네트워크의 저력이란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를 통해 세계적 행사까지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꼈다.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반성과 기대를 해 본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공정소득이라는 용어로 작년 초 대선 기간에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분위기였으나 전략적인 프레임의 부재로 이내 사그라졌다. 난장판 인신공격 토론이 주를 이루다 보니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힘들었다. 현실 정치의 아젠더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 다르게는 현실 정치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기본소득 운동도 사회적 관심에서 확장기, 답보기, 휴지기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현실 정치에 좌우되기보다는 우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현재 한국의 척박한 정치현실 속에서 꺼질 수 없는 작은 불꽃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그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께서 대회 인사말에 적어 놓은 것처럼 발터 벤야민이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를 보면서 느꼈던 "끊임없이 폐허 위에 폐허를 쌓은" 모습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도 똑같은 그림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다. 미래는 등을 돌리고 서서 방향을 잃은 불안한 날갯짓이고, 과거는 고물 창고 속으로, 현재는 피로, 권태, 분주함이지만 한국적 역동성이란 것과 폐허의 잔해 속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희망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어 본다.

이번 대회는 1986년 브뤼셀에서 시작된 기본소득대회 운동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디어, 담론적 학술적 운동 차원이나 실험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였다.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2018년 핀란드의 제한적인 기본소득 실험, 2020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미국의 2018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선별적 수당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 등 실험적 제도적 정치적 발전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위한 우울한 국면임은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서 변형된 왜곡된 모델 실험들도 나타났다. 이전보다 인식 면에서는 나아졌지만 광범위한 대중의 호응을 얻어야 하고, 과학적 실증적 연구들이 더 축적되어야 한다. 실험적 시도들도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성도 엿보였다. 그다음 정당 정책적인 당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을 종합해 보고, 기후변화 대응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도구로 보편적 기본소득 프레임과 전략 논의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가 커다란 과제이다.

4일간의 일정에 많은 주제가 발표되다 보니 소화해 내기 힘든 면도 있었다.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애니 밀러 같은 학자 그룹은 운동의 원조 멤버들이라 익히 알고 있는 터이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접할 좋은 기회였다. 각국의 기본소득 관련 사례와 이론적 논의도 다 쫓아가서 경청하기에는 많은 발제가 있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많은 주제를 핸들링 한 백승호 선생님도 안식년 기간에 노고가 많았기에 감사할 뿐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보다 많은 인원이 정파를 떠나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현재 정치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 보니 언론 홍보에서도 대회를 소개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은 정말 아쉽다.

이제 중간 점검으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왔는가? 엄중한 현실에서 걸림돌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며 중지를 모아야 하는지, 대회는 막을 내렸고 이제 다시 조용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척박한 현실을 헤쳐나갈 프로그램, 전략,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느낀 점이지만 전 지구적 연대 네트워크, 젊은 기본소득 지지자의 열기, 한국의 기본소득당과 기본사회 단체 등 든든한 추동 세력의 밑바탕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해 본다.